

창원시, 마산만 유입 하천 오수 유입 지점 80% 이상 개선

등록 2021.11.09 17:37:14

기사내용 요약

오수 유입 지점 2018년 323개→올해 206개로 감소
노후 아파트 세탁 오수와 복개 구간 오수 차단 등 필요



[창원=뉴스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9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창원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창원하천의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찬원 위원장과 9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마산만 유입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남생명의 숲,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창원YMCA, 창원YWCA,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마산만 특별 관리 해역으로 유입되는 40개 하천을 직접 확인하며 이뤄졌다.

그 결과 2018년 323개, 2019년 362개, 2020년 237개 지점이었으나 2021년에는 31개 지점이 감소한 206개의 오수 유입 지점을 확인했으며, 매년 오수 유입 지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원천, 교방천, 하남천, 신이천, 자은천 등에서 84곳의 오수 유입이 차단돼 하천 수질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9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창원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오래된 아파트의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세탁 오수 문제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의 하천 복개 구간의 오수 차단과 오래된 우수토실 관리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천 오수 유입과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해 대처한 결과 오수 유입 지점의 8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오염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되면서 지난해 마산 내만에서 사라졌던 잘피의 대규모 서식처가 확인됐고, 올해 초에는 저어새 한 쌍이 봉암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창원 남천에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뚝게가 서식하는 등 하천과 바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자료와 비교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마산만을 만들겠다"며 "마산만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묵묵히 하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에 감사드리며, 해양생물과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5100&cID=10812&pID=10800#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